ITS KOREA	보 도 자 료		
배 포 일	2026. 10. 30. (금)	매 수	11매
담 당 부 서	전략기획팀 김영식 대리(☏031-478-0451)		
배 포 부 서	전략기획팀 이형석 팀장(☏031-478-0412)		
배 포 일 시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TS Korea, 강릉 ITS 세계총회 계기로 K-ITS 해외진출 · 산업협력 기반 확대

- 글로벌 비즈니스 매칭 · 국제기관 협력 확대… 국내 ITS 기업 해외진출 지원 -

- 강릉 중소도시형 ITS 모델과 AI · 자율주행 기술 선보이며 미래산업 성장 가능성 제시 -

□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회장 허청회, 이하 'ITS Korea')는 지난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개최된 「2026 강릉 ITS 세계총회」를 통해 국내 ITS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국제협력을 확대하고, AI·자율주행 등 미래기술 융합과 지역 맞춤형 ITS 모델의 발전 가능성을 확인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 이번 세계총회에는 91개국에서 연인원 6만여 명이 참가했으며, 180개 학술 세션에서 774건의 발표가 진행되고 국내외 108개 기업·기관이 428개 전시 부스를 운영하는 등 세계 각국의 정부·산업계·학계가 미래교통의 발전 방향을 공유하는 국제교류의 장으로 개최됐다.

○ 1998년 서울 세계총회가 대한민국 ITS의 발전 가능성을 세계에 알리고, 2010년 부산 세계총회가 축적된 기술과 구축 경험을 선보이는 자리였다면, 이번 강릉 세계총회는 첨단 교통기술을 실제 지역 교통문제 해결에 적용하고 이를 새로운 산업 성장 기회로 확장할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ITS Korea는 세계총회 공동 주관기관으로서 국내기업과 해외 교통당국·기업 간 교류를 지원하고, 주요 국제기관과의 협력관계 확대, AI·자율주행 분야 기술교류, 지역 ITS 발전 및 산업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을 추진했다.

글로벌 비즈니스 매칭… 국내 ITS 기업 해외진출 지원

□ ITS Korea는 세계총회 기간 국내 ITS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비즈니스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글로벌 비즈니스 매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해외 정부·기관 및 기업과 국내 ITS 기업 간 교류를 확대했다.

○ 전시장 내 기업별 부스에서 423건, 비즈니스 라운지에서 69건 등 총 492건의 비즈니스 상담이 진행됐으며, 비즈니스 라운지에서는 해외 정부와 국내 기업 간 상담 10건을 지원했다.

○ 특히 아일랜드·카자흐스탄·타지키스탄·우즈베키스탄 등 해외 교통당국과 국내기업 8개사 간 상담을 지원해 각국의 교통 인프라 및 ITS 기술 수요를 국내기업의 사업 역량과 연결하는 기회를 마련했다.

○ 수출플러스지원단과 연계한 ‘수출기업 지원사업 설명회’에는 국내 9개 기관 및 기업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수출바우처·수출금융 등 정부 지원 사업 안내와 기업별 맞춤형 상담이 진행됐다.

장관회의 · 고위급 양자면담 지원… 한국 ITS 정책 · 기술 홍보

□ ITS Korea는 세계총회 기간 국토교통부의 고위급 국제협력 활동을 지원하며, 장관회의와 주요국 교통당국 및 국제기구와의 양자면담 준비·운영 등 국제협력 업무를 수행했다.

○ 9개국·2개 국제기구가 참여한 장관회의 준비와 운영을 지원했으며, 회의에서는 AI 기반 ITS 정책·기술 발전 방향과 미래 모빌리티 분야의 국제협력 방안 등이 논의됐다.

○ 또한 말레이시아·싱가포르·베트남·우즈베키스탄·아일랜드 등 주요국 교통당국과 U.S. DOT(미국 교통부), UNECE(유엔 유럽경제위원회) 등 해외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총 10건의 고위급 양자면담에 대해 관계기관 협의, 국가별 일정 조율 및 현장 운영 등을 지원했다.

□ 한국관에서는 국내 ITS 정책과 기술·서비스를 홍보하고, 해외 정부·기관 관계자들에게 한국의 ITS 구축·운영 경험을 소개했다.

○ 국내외 50개 기관, 600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국관 가이드 투어를 진행하며 긴급차량 우선신호, 스마트횡단보도, 스마트교차로 등 국내 주요 ITS 기술과 서비스를 소개했다.

○ 지역 학생과 시민단체 등 일반 참관객을 대상으로도 ITS 홍보영상과 생활 속 교통서비스를 소개하며 첨단 교통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AASHTO · ITS UK 등 해외 주요 기관과 협력 확대… 공동사업 기반 강화

□ ITS Korea는 세계총회를 계기로 해외 주요 ITS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세션 및 협력회의를 개최하는 등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했다.

○ ITFVHA(국제 차량-도로 자동화 태스크포스), IRF(국제도로연맹), AASHTO(미국 주정부 도로·교통당국 협의체), ITS UK(영국 ITS협회) 등 4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자율주행·V2X·디지털 도로 인프라 등 주요 분야의 정책·기술 교류와 후속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 특히 AASHTO와는 첫 공식 협력회의를 개최해 V2X·디지털 도로 인프라 관련 표준화·시험·성능평가 정보와 ITS 구축·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정례 양자회의와 웨비나 운영 등 후속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 ITS UK와는 2027년 영국 버밍엄에서 개최되는 ITS 세계총회와 연계해 양국 회원기업 간 비즈니스 교류와 공동 기술개발·실증·연구 등 실질적인 산업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 해외 주요 기관과의 공동세션을 통해 미래교통 분야의 정책·기술 교류도 확대했다.

ㅇ U.S. DOT(미국 교통부), AASHTO, TNO(네덜란드 응용과학연구기구), ITFVHA 등과 공동세션을 운영하며 자율협력주행·교통 디지털화 등 주요 정책과 기술 현안을 공유하고, 향후 협력 가능성을 모색했다.

□ 해외 교통당국과의 협력회의에서도 국내 ITS 기술의 해외 적용과 후속 사업협력 기회도 모색했다.

ㅇ ADB(아시아개발은행)와 연계해 우즈베키스탄·베트남·카자흐스탄·타지키스탄 등 4개국 교통당국과 협력회의를 개최하고, 국가별 ITS 도입 수요를 확인하며 기술·재원 연계방안을 논의했다.

ㅇ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통합교통센터와 국내 ITS 기업 간 협력회의를 개최해 현지 교통데이터를 활용한 AI 기반 교통관리 기술의 적용·시연과 공동 실증 등 후속 협력 가능성을 논의하며 중동시장 진출을 위한 교류 기회를 마련했다.

ㅇ 한편, ITS Korea는 국토교통 ODA 사업을 통해 통합교통정보센터(CITRA)를 구축한 콜롬비아 메데진시의 교통국 부국장 등 관계자 7명을 세계총회에 초청하고, 국내 ITS 기술과 구축·운영 사례를 소개하며 기술교류 및 후속 협력 기회를 마련했다.

강릉형 ITS 모델의 가능성 확인… 지능형교통지역발전협의체서 지역 ITS 발전방안 논의

□ 이번 강릉 세계총회는 첨단 ITS 기술을 중소도시의 교통 여건에 맞게 적용하고, 교통혼잡과 보행안전, 대중교통 접근성 등 지역이 안고 있는 다양한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미래교통 모델을 선보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ㅇ 강릉시는 관광객 집중에 따른 교통혼잡과 외곽지역의 대중교통 접근성 부족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해 스마트교차로, 긴급차량 우선신호, 스마트횡단보도, 실시간 주차정보 및 자율주행 교통서비스 등 다양한 ITS 서비스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 2025년 ITS 구축사업 사후평가 결과, 스마트교차로 43개소의 평균 통행속도는 약 6.2% 증가하고 지체시간은 약 14.5% 감소했으며, 긴급차량의 출동부터 거점병원 도착까지 소요시간은 약 13분에서 5분으로 단축되는 등 교통환경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

○ 강릉에서 축적된 ITS 구축·운영 경험은 국내 다른 지자체는 물론, 유사한 교통 문제를 안고 있는 해외 중소도시에도 적용할 수 있는 지역 맞춤형 ITS 모델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ITS Korea는 지역 ITS의 활성화와 지자체 간 협력 강화를 위해 세계총회 기간 '지능형교통지역발전협의체' 세션을 개최했다.

○ 이번 세션에는 42개 기관·지자체에서 98명이 참석해 「도로교통분야 ITS 기본계획 2030」 보완 방향과 디지털도로 AI 신기술 지원사업,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구축 방향 등 주요 정책과제를 공유했다.

○ 아울러 광역지자체의 기초지자체 지원과 지역 간 ITS 서비스 연계, 노후시설 운영·관리 등 지역 ITS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K-NPU 밋업 · 미래산업 공동선언… AI 기술융합과 혁신기술 사업화 성과

□ ITS Korea는 국산 AI 반도체와 ITS 기술의 융합을 촉진하고, 새로운 교통 서비스 개발과 사업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업 간 기술교류를 추진했다.

○ 'AI-ITS 혁신을 위한 K-NPU 전환지원 밋업'에는 국산 NPU 개발기업과 ITS 기업 등 30개 기업, 70여 명의 관계자가 참여해 기술·제품과 적용사례를 공유하고, 기업 간 비즈니스 매칭 19건을 진행했다.

○ 특히 AI 영상관제·스마트교차로 등 교통 분야에서 국산 NPU 도입에 따른 비용·전력·기술 호환성 문제와 안양·성남 스마트교차로의 실증 경험을 공유하고, 모델 최적화와 현장 실증, 공동 제품화 등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 미래산업 간 기술융합과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K-미래산업 혁신생태계 구축 공동선언식’도 개최했다.

ㅇ 지능형교통·스마트도시·재난안전·정보통신·AI·로봇·자율주행 등 미래산업 7개 분야의 참여기관들은 ‘연결과 융합으로 여는 K-미래산업 혁신생태계’를 공동 비전으로 선포했다.

ㅇ 참여기관들은 기술·정책·산업 동향 공유와 공동연구·기술개발, 기업 간 교류 및 국내외 사업협력 확대 등을 위한 협력 의지를 밝히며 산업 간 융합과 새로운 사업 발굴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 ITS Korea는 디지털도로 AI 신기술 지원(AX-Sprint)사업의 전담기관으로서 세계총회 기간 AX-Sprint 통합전시관을 운영하고, 국내 AI·ITS 기업의 기술 성과를 홍보하며 사업협력 확대를 지원했다.

ㅇ AX-Sprint 사업은 AI 기반 차량 감속 유도, 도로 파손 자동 탐지, 교통신호 최적화, 로봇을 활용한 도로 유지관리 등 총 18개 과제의 기술 상용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세계총회를 통해 주요 기술과 성과를 국내외 관계자들에게 선보였다.

ㅇ 통합전시관에는 일평균 400명 이상이 방문했으며, 주요 인사 및 일반 관람객을 대상으로 총 29회의 도슨트 투어를 운영했다. 또한 비즈니스 매칭 6건과 컨퍼런스 스테이지 발표 3건을 연계해 국내 AI·ITS 기업의 기술 홍보와 협력 기회 확대를 지원했다.

□ ITS Korea가 전담기관으로 추진하는 ‘ITS 혁신기술 공모사업’을 통해 개발된 기술들도 이번 세계총회에서 해외시장 진출과 후속 사업화 가능성을 보여줬다.

ㅇ 2025년 공모사업에 선정된 에스트래픽·바이다·오스코·노타·뱀부스 등 5개 사업자의 혁신기술이 전시됐으며, 국내외 기업·기관과 총 79건의 비즈니스 상담이 진행돼 해외 실증계약과 기술 적용 검토, 후속 협의 등 16건의 유의미한 협력사항이 발굴됐다.

ㅇ 특히 에스트래픽-바이다 컨소시엄은 일본 기업과 역주행 방지 솔루션의 현지 실증(PoC) 계약을 체결했으며, 오스코·노타·뱀부스 등의 기술에 대해서도 싱가포르·아부다비 등 해외 교통당국과 기업들이 관심을 보이며 현지 적용 가능성과 후속 사업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등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을 확인했다.

ITS 표준화 · 시험인증 역량 홍보… 산업통계 국제협력 확대

□ ITS Korea는 세계총회 기간 국내 ITS 기술의 표준화와 시험·검증 역량을 소개하고, 해외 전문가 및 기업과의 기술교류를 통해 국제표준 대응과 기술 신뢰성 확보를 위한 협력을 확대했다.

ㅇ 10월 22일 개최한 '2026 해외 전문가 초청 ITS 표준 국제세미나'에는 한국·미국·유럽·일본의 표준 전문가들이 참여해 주요국의 ITS 표준화 추진현황과 자율주행·커넥티드 차량 관련 국제표준 및 기술 동향을 공유했다.

ㅇ 또한 10월 20일부터 21일까지 '2026 C-ITS 상호호환성 시험(K-Plugtest)'을 개최해 13개 기업·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LTE-V2X, 보안 인증체계, C-ITS 서비스 기능 및 e-Call 등 총 315개 시험항목을 기반으로 기술 적합성과 호환성을 확인했다.

□ 실제 도로환경에서 차량과 인프라 간 통신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LTE-V2X 성능측정 기술을 선보이며 국내 ITS 시험·평가 역량도 소개했다.

ㅇ 강릉 하키센터 일대 약 2.4km 구간에서 차량과 도로 인프라 간 통신 성능을 측정하고, 실제 차량을 대규모로 배치하지 않고도 155대 규모의 차량 통신환경을 재현하는 기술을 시연했다.

□ ITS Korea는 국내 ITS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정책 기반 마련을 위해 구축한 ITS 산업 특수분류 체계와 산업통계조사 추진현황을 국제사회에 소개했다.

ㅇ ITS 산업특수분류는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국가데이터처, ITS Korea가 협력하여 ITS 산업의 범위와 구조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현재는 이를 기반으로 산업 규모와 기업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산업통계 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ㅇ 이번 세계총회에서는 한국형 ITS 산업 특수분류의 개발·검증 과정과 산업통계조사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국가 간 산업통계 정보 및 조사 경험 교류 등 향후 국제협력 가능성을 제안했다.

글로벌 협력성과를 수출 · 공동사업으로 연결… 후속 협력 추진

□ ITS Korea는 이번 강릉 세계총회를 통해 확대된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와 기업 간 교류가 실질적인 해외사업과 기술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 특히 해외 교통당국 및 국제기관과의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국가별 ITS 도입 수요와 국내기업의 기술·사업 역량을 연계하고, 공동 기술개발·실증 및 후속 사업 발굴을 위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AI·자율주행 등 미래기술과 ITS 산업 간 융합을 촉진하고, 지역 맞춤형 ITS 서비스 확산과 표준화·시험인증, 산업통계 등 산업 발전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 허청회 ITS Korea 회장은 “이번 강릉 ITS 세계총회는 대한민국 ITS 산업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세계에 알리고, 해외 정부·기관 및 기업과 새로운 협력 기회를 마련한 뜻깊은 자리였다”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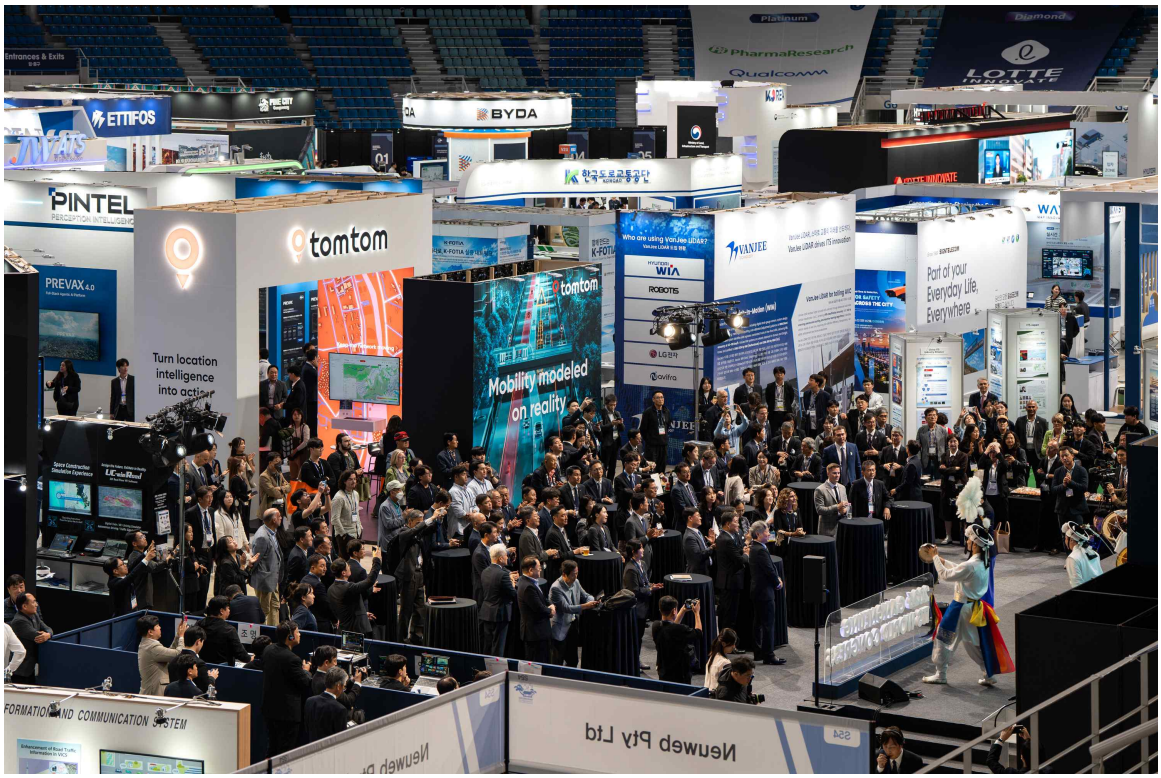
ㅇ “중요한 것은 이번 총회에서 형성된 협력관계가 일회성 교류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수출과 공동사업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ㅇ 이어 “협회도 기술개발과 실증, 사업화, 해외진출이 선순환하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국내 ITS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역할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붙 임 **관련 사진**



[사진1] 2026 강릉 ITS 세계총회 개회식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교통 분야 장·차관 및 주요 인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2] 강릉 ITS 세계총회 기간 열린 한국 환영 리셉션에서 국내외 참가자들이 전통 사물놀이 공연을 관람하며 교류하고 있다.



[사진3] 지능형교통지역발전협의체가 주관한 지자체 ITS 세션에서 전문가와 지자체 관계자들이 지역 ITS 발전 및 협력방안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사진4] 손승녀 ITS Korea 미래전략본부장이 ‘AI-ITS 혁신을 위한 K-NPU 전환지원 밋업’에서 국산 AI 반도체(NPU)의 교통 분야 활용과 현장 실증·사업화 협력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5] 김상헌 ITS Korea 적합성평가실장이 기술시연장에서 국내외 참관객들에게 실제 도로 환경에서 LTE-V2X 노변장치의 통신 성능을 측정·검증하는 성능평가 기술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6] 2026 강릉 ITS 세계총회 폐회식에서 차기 개최지인 영국 버밍엄에 총회 상징물인 'ITS 글로브'를 전달하는 글로브 패싱(Globe Passing) 세리머니가 진행되고 있다.